

I 단어

이 단어의 분류 - 품사

001 답 ③ [선택률] ① 4% ② 14% ③ 69% ④ 14% ⑤ 10%

이제 정답! <보기>에 주어진 예문에 사용된 단어를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호수가 깊다.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단어		호수, 가, 깊다	강, 의, 깊이, 는, 누구, 도, 모르다(‘모른다’의 기본형)
형태	가변어	깊다	모르다
	불변어	호수, 가	강, 의, 깊이, 는, 누구, 도
기능	체언	호수	강, 깊이, 누구
	용언	깊다	모르다
	관계언	가	의, 는, 도
의미	명사	호수	강, 깊이
	대명사	-	누구
	동사	-	모르다
	형용사	깊다	-
	조사	가	의, 는, 도

품사 분류 기준 중 ‘기능’은 문장 안에서의 역할(기능)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는 것으로, 두 예문을 체언 ‘호수, 강, 깊이, 누구’와 용언 ‘깊다, 모르다, 관계언 ‘가, 의, 는, 도’로 분류한 ③은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단어를 분류하였다.

왜 답이 아니지? ① 단어는 형태의 변화 여부에 따라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뉘므로, 형태가 변하는 ‘깊다’와 ‘모르다’는 가변어, 나머지는 불변어이다. ② ‘누구’는 ‘호수’, ‘강’, ‘깊이’와 함께 체언으로, ‘가, 의와 ‘는, 도’는 관계언으로, 각각을 묶어서 분류해야 한다.

④, ⑤ 품사 분류 기준 중 ‘의미’는 개별 단어가 갖는 의미가 아니라 품사 전체가 갖는 의미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다. ‘깊다’는 형용사, ‘모르다’는 동사, ‘호수, 강, 깊이’는 명사, ‘누구’는 대명사, ‘가, 의, 는, 도’는 조사로 분류되므로, ④와 ⑤의 분류는 모두 적절하지 않다.

002 답 ④ [선택률] ① 17% ② 11% ③ 14% ④ 50% ⑤ 7%

이제 정답! [나]에 사용된 단어를 ㉠~㉢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옆에 아홉은 매우 착실한 학생이다.			
단어		옆, 예, 아홉, 은, 매우, 착실한, 학생, 이다			
㉠ 형태	가변어	착실한, 이다			
	불변어	옆, 예, 아홉, 은, 매우, 학생			
㉡ 기능	체언	옆, 아홉, 학생	용언	착실한	
	수식언	매우	관계언	예, 은, 이다	
㉢ 의미	명사	학생	수사	옆, 아홉,	
	형용사	착실한	부사	매우	
	조사	예, 은, 이다			

곧, ㉢ ‘의미’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면 ‘아홉’은 수사, ‘학생’은 명사이므로, 이 둘이 같은 품사라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왜 답이 아니지? ① ㉠ ‘형태’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면 용언 중 형용사인 ‘착실한’과 서술격 조사 ‘이다’는 가변어에 해당한다.

②, ③ ㉡ ‘기능’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면 ‘옆’과 ‘학생’은 체언, ‘은’과 ‘이다’는 관계언에 해당한다.

⑤ ㉢ ‘의미’에 따라 단어를 분류하면 ‘매우’는 부사, ‘착실한’은 형용사로, 둘은 각각 다른 품사에 해당한다.

003 답 ③ [선택률] ① 17% ② 4% ③ 49% ④ 2% ⑤ 23%

이제 정답! <보기>에 주어진 두 예문에 사용된 단어를 제시된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우리도 두 팔을 넓게 벌려 원 하나를 이루었다.	동생이 나무로 된 탁자에 그린 꽃만 희미하다.
단어		우리, 도, 두, 팔, 을, 넓게, 벌려, 원, 하나, 를, 이루었다	동생, 이, 나무, 로, 된, 탁자, 에, 그린, 꽃, 만, 희미하다
형태	가변어	넓게, 벌려, 이루었다	된, 그린, 희미하다
	불변어	우리, 도, 두, 팔, 을, 원, 하나, 를	동생, 이, 나무, 로, 탁자, 에, 꽃, 만
기능	체언	우리, 팔, 원, 하나	동생, 나무, 탁자, 꽃
	용언	넓게, 벌려, 이루었다	된, 그린, 희미하다
	수식언	두	-
	관계언	도, 을, 를	이, 로, 에, 만
의미	명사	팔, 원	동생, 나무, 탁자, 꽃
	대명사	우리	-
	수사	하나	-
	동사	벌려, 이루었다	된, 그린
	형용사	넓게	희미하다
	조사	도, 을, 를	이, 로, 에, 만

첫 번째 예문에서 ‘두’는 ‘팔’을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관형사로 수식언이지만, ‘하나’는 목적격 조사 ‘를’과 결합한 수사로 문장 안에서 주어/목적어/보어의 역할을 하는 체언이다. 곧, ‘하나’는 수식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

왜 답이 아니지? ① ‘도’와 ‘만’은 모두 조사로,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해당한다.

② ‘이루었다’와 ‘그린’은 모두 용언이다. 용언은 문장에서 기능에 따라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여 형태가 변하는 활용을 하므로, 가변어에 해당한다.

④ ‘나무’와 ‘꽃’은 모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⑤ ‘넓게’와 ‘희미하다’는 모두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004 답 ① [선택률] ① 90% ② 4% ③ 4% ④ 1% ⑤ 1%

이제 정답! 발문에서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라는 것은, 선택지의 밑줄 친 말들 중에서 자립 명사가 아닌 의존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찾으라는 뜻이다. ①의 ‘군데’는 ‘세 군데’, ‘몇 군데’, ‘여러 군데’ 등 반드시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야 하는 의존 명사로, ㉠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답이 아니지? ② ‘그릇’은 음식이나 물건 따위를 담는 기구를 통틀어 이

르는 말로, ‘그릇을 썼다.’, ‘그릇을 비우다.’와 같이 쓰이는 자립 명사이다. 그러면서도 ㉡에서와 같이 ‘두’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음식을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

③ ‘덩어리’는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뜻하는 말로, ‘덩어리가 지다.’, ‘우박이 덩어리로 쏟아진다.’와 같이 쓰이는 자립 명사이다. 그러면서도 ③에서와 같이 ‘세’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부피가 큰 것이나 크게 뭉쳐서 이루어진 것을 세는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

④ ‘숟가락’은 밥이나 국물 따위를 떠먹는 기구를 뜻하는 말로, ‘숟가락으로 밥을 뜨다.’와 같이 쓰이는 자립 명사이다. 그러면서도 ④에서와 같이 그리 많지 않은 얼마만큼의 수를 막연하게 이르는 말인 ‘몇’ 뒤에서 밥 따위의 음식물을 떠 그 분량을 세는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

⑤ ‘발자국’은 발로 밟은 자리에 남은 모양을 뜻하는 말로, ‘짐승의 발자국’, ‘발자국이 남아 있다.’와 같이 쓰이는 자립 명사이다. 그러면서도 ⑤에서와 같이 ‘서너’라는 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서 밟을 한 번 떼어 놓는 걸음을 세는 단위로 쓰이기도 한다.

005 답 ① [선택률] ① 71% ② 7% ③ 10% ④ 6% ⑤ 6%

이제 정답! 대부분의 체언은 비교적 자유롭게 조사와 결합하지만 어떤 체언은 조사와 결합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보기>에서 ‘극비리’가 조사 ‘에’와는 결합하지만, ‘극비리’, ‘극비리’,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결합 가능하지 않은 조사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①에서의 명사 ‘미연’ 역시 조사 ‘에’와는 결합하지만 ‘미연이’, ‘미연을’, ‘미연의’, ‘미연에게’, ‘미연이다’처럼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는 않으므로, 결합하는 조사의 종류 측면에서 ㉠에 해당하는 명사로 볼 수 있다.

왜 답이 아니지? ② 명사 ‘판국’은 조사 ‘에’와는 물론, ‘판국을 살펴보자.’, ‘지금 세상은 이런 판국이다.’에서와 같이 조사 ‘을’, ‘이다’와도 결합하여 사용된다.

③ 명사 ‘덕분’은 조사 ‘에’와는 물론, ‘이 모든 것은 선생님 덕분이다.’에서와 같이 조사 ‘이다’와도 결합하여 사용된다.

④ 명사 ‘순식간’은 조사 ‘에’와는 물론, ‘그 사고는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가 사고를 당한 것은 순식간이었다.’에서와 같이 조사 ‘의’, ‘이다’와도 결합하여 사용된다.

⑤ 명사 ‘제멋’은 조사 ‘에’와는 물론, ‘한겨울에 반소매 옷을 입는 것도 제멋이다.’에서와 같이 조사 ‘이다’와도 결합하여 사용된다.

006 답 ⑤ [선택률] ① 10% ② 7% ③ 14% ④ 12% ⑤ 57%

이제 정답! ⑤에서의 명사 ‘노파심’은 ‘노파심에서 하는 말’을 비롯하여 ‘노파심이 생겼다.’, ‘노파심을 가지지 말자.’, ‘노파심으로 하는 소리’ 등과 같이 다양한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므로, <보기>의 (특정한 조사와만 결합하는) 어떤 체언들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답이 아니지? ① 명사 ‘미연’은 주로 조사 ‘에’와 결합하여 사용될 뿐, ‘미연이’, ‘미연을’, ‘미연의’, ‘미연에게’, ‘미연이다’처럼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는 않는다.

② 명사 ‘불굴’은 주로 조사 ‘의’와 결합하여 사용될 뿐, ‘불굴이’, ‘불굴을’, ‘불굴에게’, ‘불굴이다’처럼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는 않는다.

③ 명사 ‘불가분’은 주로 조사 ‘의’와 결합하여 사용될 뿐, ‘불가분이’, ‘불가분을’, ‘불가분에게’, ‘불가분이다’처럼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는 않는다.

④ 명사 ‘얼떨결’은 주로 조사 ‘에’와 결합하여 사용될 뿐, ‘얼떨결이’, ‘얼떨결을’, ‘얼떨결에게’, ‘얼떨결이다’처럼 다른 조사와 결합하여 사용되지는 않는다.

● Tip 1등급을 가르는 포인트

006번 문제를 질문한 학생들이 참 많았다. 그런데 문제는 005번 문제는 잘 맞혔으면서 006번 문제를 질문한 학생들이 많았다는 것이다. 005번 문제의 <보기>에서 결합 가능하지 않은 조사의 목록을 예시로 보여 주었으므로, 이 예시에 따라 006번 문제의 밑줄 친 단어에도 조사를 똑같이 결합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005번 문제는 수능 문제이고, 006번 문제는 교육청 주관의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평가원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출제할 때에는 005번 문제와 같이 <보기>에서 좀 더 친절하게 예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007 답 ① [선택률] ① 82% ② 4% ③ 4% ④ 6% ⑤ 4%

이제 정답! ‘무엇’이라는 대명사가 ㉠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무엇’이 미지칭 대명사로 쓰였다는 것이다. ①에서의 대명사 ‘무엇’은 ‘저 꽃’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기 위해 사용한 것으로, 모르는 사실이나 사물을 가리키는 미지칭 대명사로서 쓰였다.

왜 답이 아니지? ② 여기서의 대명사 ‘무엇’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③, ④, ⑤ 여기서의 대명사 ‘무엇’은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는 대상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008 답 ① [선택률] ① 63% ② 2% ③ 11% ④ 22% ⑤ 1%

이제 정답! ① ‘누가’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하는 부정칭 대명사가 아니라, ‘계세요?’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자신이 나가 보겠다는 맥락으로 쓰인 것이므로 ‘미지칭 대명사’에 해당한다.

왜 답이 아니지? ② ㉡ ‘제’는 화자인 아들 자신을 가리키므로 일인칭 대명사이다.

③ ㉢ ‘누구’는 ㉠ ‘누가’와 마찬가지로 현관문 밖에서 ‘계세요?’라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므로 ‘미지칭 대명사’이다.

④ ㉣ ‘당신’은 청자를 가리키는 이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앞에 나온 삼인칭 주어인 ‘할머니’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⑤ ㉤ ‘네’는 청자인 아들을 가리키므로 이인칭 대명사이다.

009 답 ① [선택률] ① 65% ② 24% ③ 5% ④ 4% ⑤ 2%

이제 정답! <보기>에서 ‘당신’이 2인칭으로 쓰이기도 하고, 3인칭 주어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로 쓰이기도 한다고 하였으므로, 동일한 형태가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는 사례를 찾아야 한다. ①의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 습니다.’에서 ‘저희’는 화자인 자신을 포함하여 1명 이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1인칭으로 쓰였다(‘우리’의 낮춤말). 그런데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에서 ‘저희’는 이 말을 하고 있는 화자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3인칭 주어 ‘애들’을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저희’는 3인칭 재귀 대명사로 쓰였다. 곧, ①의 두 예문에서의 ‘저희’는 형태는 동일하지만 서로 다른 인칭으로 쓰였다.

왜 답이 아니지? ②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에서 ‘누구’는 ‘너’가 누구인지 몰라서 물어본 것이므로 ‘미지칭 대명사’이다.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에서 ‘누구’는 정해지지 아니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으므로 ‘부정칭 대명사’이다. ‘미지칭 대명사’와 ‘부정칭 대명사’는 화자나 청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므로 모두 3인칭 대명사에 속한다.

③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에서 ‘그’는 화자나 청자를 가리키고 있지 않으므로 3인칭으로 쓰였고,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에서 ‘그’는 사람

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아니라 지시 대명사이다.

④ ‘너희를 누가 불렀니?’에서 ‘너희’는 여러 명의 청자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2인칭으로 쓰였다.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에서 ‘너희’ 또한 청자를 가리키고 있으므로 2인칭으로 쓰였다.

⑤ ‘우리 먼저 갈게요.’에서 ‘우리’는 화자인 자신을 포함하여 1명 이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1인칭으로 쓰였다.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에서 ‘우리’ 또한 화자인 자신을 포함하여 1명 이상을 가리키고 있으므로 1인칭으로 쓰였다.

010 답 ②

[선택률] ① 2% ② 87% ③ 4% ④ 5% ⑤ 2%

이게 정답! ㉔ ‘그쪽은 화자인 ‘나’의 상대방, 즉 청자를 가리키고, ㉓ ‘당신’ 역시 청자를 가리키고 있다. 그러므로 ㉔과 ㉓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다.

왜 답이 아니지? ① ㉑ ‘내가 나의’를 줄인 말이라면 ‘내가’는 ‘나의’가라는 것인데, 이는 옳지 않다.

③ ㉒ ‘나는 ㉔ 그쪽에서 ㉔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에서 ㉔ ‘우리’가 ㉒ ‘나’와 ㉔ ‘그쪽’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라면, ‘나의 아버지와 ‘그쪽’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는 문맥상 옳지 않다. ‘우리 아버지는 화자인 ‘나’의 아버지를 가리킨다.

④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다음에 ‘이건 ㉔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가 이어 오는 것은 적절하다. 한 문장 안에서 앞에 나온 말을 반복하여 사용하는 것은 어색하지만, 문장이 두 개 이상으로 나뉘어 있을 경우에는 앞 문장에서 나온 말을 반복 사용한다고 해도 그리 어색하지는 않다.

⑤ ‘아버지께서는 ㉔ 당신의 책을 묵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에서 ㉔ ‘당신’은 3인칭 주어 ‘아버지’를 가리키는 것이고, ‘아버지’는 높임의 대상이므로 재귀 대명사 ‘자기’의 높임말인 ‘당신’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다.

011 답 ⑤

[선택률] ① 4% ② 1% ③ 11% ④ 5% ⑤ 79%

이게 정답! ‘우리 아이들은 ㉔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다.’에서 ㉔ ‘저희’가 1인칭으로 사용되었다면 화자인 ‘선생님’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데, 문맥상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저희’는 화자나 청자가 아닌 3인칭 주어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로 쓰였다.

왜 답이 아니지? ① ㉑ ‘이것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것으로,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며 할아버지께서 생일 때 사 주신 것이다.

②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이것도 ㉒ 그것 중 하나예요.’에서 ㉒ ‘그것’은 앞서 언급한 대상인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③ ‘할아버지께서는 ㉔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에서 ㉔ ‘당신’은 화자나 청자가 아닌 3인칭 주어 ‘할아버지’를 가리키는 재귀 대명사이다.

④ ‘㉔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에서 ㉔ ‘우리’는 화자인 ‘선생님’ 자신을 포함하여 가리키고 있으므로 1인칭으로 쓰였다.

•샘 Tip 1등급을 가르는 포인트

대명사와 관련된 기출문제에서는 주로 다음의 두 가지 내용에 관해 물었다.

① 3인칭 재귀 대명사 ‘당신’의 쓰임: 대명사 파트에서도 자주 나오지만, 뒤에서 다룰 높임법 파트에서도 자주 다루는 개념이다. 특히 평가원 기출문제에서 꽤 많이 다루었다.

② 1인칭, 2인칭, 3인칭의 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곧, 1인칭 = 화자, 2인칭 = 청자, 3인칭 = 화자도 청자도 아닌 사람!

012 답 ④

[선택률] ① 3% ② 6% ③ 17% ④ 70% ⑤ 4%

이게 정답! ㄴ ‘2시가 가까워서이다./그것은 나부터이다./내가 먼저이다.’를 볼 때, 자립성이 있는 단어 ‘먼저’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결합했어도 주어 ‘내가’는 생략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ㄷ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는 주어를 상정할 수 없는 속담 ‘땅 짚고 헤엄치기’에 ‘이다’가 결합한 것이므로 주어의 생략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왜 답이 아니지? ① ㄱ ‘이것이 책이다./이것이 책이니/이것이 책이면/...’을 볼 때,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태가 고정된 불변어가 아니라 용언처럼 활용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 가능하다는 것은, 서술격 조사 ‘이다’가 지닌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② ㄷ ‘땅 짚고 헤엄치기이다./땅 짚고 헤엄치기다.’를 볼 때, ‘이다’ 바로 앞에 붙어 있는 ‘-기’가 받침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이-’가 생략되어 ‘땅 짚고 헤엄치기다.’와 같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ㄱ ‘이것이 책이다./이것이 책이니/이것이 책이면/...’을 볼 때, 서술격 조사 ‘이다’는 체언(책) 뒤에 붙을 수 있다. 또한 서술격 조사 ‘이다’는 ㄴ의 ‘2시가 가까워서이다.’에서와 같이 용언의 어미 ‘-어서’ 뒤에(가깝- + -어서 + 이다), ‘그것은 나부터이다.’에서와 같이 조사 ‘부터’ 뒤에, ‘내가 먼저이다.’에서와 같이 부사 ‘먼저’ 뒤에도 붙어 쓰임을 알 수 있다.

⑤ ‘이다’는 서술격 조사로, 체언이나 용언의 어미, 조사, 부사 등의 뒤에 붙어서 서술의 기능을 갖게 한다.

013 답 ⑤

[선택률] ① 3% ② 21% ③ 3% ④ 3% ⑤ 69%

이게 정답! ㄹ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을 주셨다.’는 ‘선생님께서 책 열 권을 주셨다.’, ‘선생님께서 책을 열 권 주셨다.’와 같이 하나의 목적격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문장에서 목적격 조사가 두 번 나오더라도 이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이해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왜 답이 아니지? ① ㄱ ‘그는 누구 더 사랑할까?’에서 ‘누굴’은 ‘누구 + 를’의 준말로, 목적격 조사가 ‘르’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함을 알 수 있다.

② ㄴ ‘나는 사과를 좋아해./나는 사과를 좋아해.’에서 목적격 조사 ‘를’ 자리에 보조사 ‘는’이 쓰이기도 함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당시에 이 선택지를 답으로 고른 학생들이 많았는데, 이때에는 문법 지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없었으므로 ‘는’을 보조사가 아닌 주격 조사로 오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③ ㄷ ‘나는 너만을 좋아해./나는 너를 좋아해.’에서 체언 ‘너’와 목적격 조사 ‘를’ 사이에 보조사 ‘만’이 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ㄹ ‘나는 영수와 만났다./나는 영수를 만났다.’에서 부사격 조사 ‘와’를 목적격 조사로 바꾸어 쓰기도 함을 알 수 있다.

014 답 ⑤

[선택률] ① 4% ② 3% ③ 13% ④ 7% ⑤ 73%

이게 정답! <보기>에서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된 예가 제시된 것은 ㄱ인데, 여기서 ‘집과 밖’은 그 의미가 동격이 아니다. 따라서 ‘의’를 생략할 경우는 앞과 뒤의 체언이 의미상 동격일 때라고 이해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왜 답이 아니지? ① <보기>의 ㄱ을 보면, ‘집의 밖’이라고 하는 것보다 관형격 조사 ‘의’를 생략하여 ‘집 밖’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움을 알 수 있다.

② <보기>의 ㄱ을 보면, 관형격 조사 ‘의’가 생략되더라도 체언 ‘집’의 역할(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함)은 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③ <보기>의 ㄴ을 보면, 관형격 조사 ‘의’는 인칭 대명사 ‘나, 저, 너’와 결합하면 각각 ‘내, 제, 네’로 축약됨을 알 수 있다.

④ <보기>의 ㄱ~ㄷ을 보면,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한 체언(ㄱ은 ‘집’, ㄴ은 ‘내, 제, 네’, ㄷ은 ‘책임’)은 문장에서 뒤에 오는 체언(ㄱ은 ‘밖’, ㄴ은 ‘고향,

사정, 일’, ㄷ은 ‘일부’)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015 답 ④

[선택률] ① 1% ② 3% ③ 3% ④ 88% ⑤ 5%

이게 정답! ‘음악 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한곳 ㉔에 모였다.’에서 ㉔ ‘에’는 접근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앞 ㉔에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다.’에서 ㉔ ‘에’는 ‘이탈’의 의미가 아니라 한 사람이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공간적으로 앞에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왜 답이 아니지? ① ‘사람들이 하나둘 공원 ㉔에 모여들기 시작했다.’에서 ㉔ ‘에’는 ‘모여들다’의 목표 지점을 나타낸다.

② ‘의자 ㉔에 앉아 있는 사람들과 잔디 ㉔에 누워 있는 사람들’에서 ㉔과 ㉔의 ‘에’는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아/어 있-’과 함께 쓰이고 있다.

③ 상태의 지속을 나타내는 ‘의자 ㉔에 앉아 있는 사람들’, ‘잔디 ㉔에 누워 있는 사람들’에서의 ‘에’와 달리, ‘음악 소리가 나자 모든 사람들이 자리 ㉔에 서 일어나 한곳에 모였다.’에서의 ㉔ ‘에서’는 ‘음악 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상황에서 사용되었음을, 즉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사람들 사이 ㉔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에서 ㉔ ‘에서’는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는 장소가 ‘사람들 사이’임을 의미한다.

016 답 ③

[선택률] ① 7% ② 3% ③ 86% ④ 2% ⑤ 2%

이게 정답! a ‘고마운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에서 ‘에서’는 ‘고마운 마음’이 ‘말씀’을 드리는 근거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ㄱ에 해당한다.

b ‘어느 학교 동창회에서 있었던 일이다.’에서 ‘에서’는 ‘동창회가 어떤 일이 있었던 처소(장소)임을 의미하므로 ㄴ에 해당한다.

c ‘우리는 아침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하였다.’에서 ‘에서’는 ‘도서관’이 만나기로 한 처소(장소)임을 의미하므로 ㄴ에 해당한다.

d ‘그저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에서 행한 일이다.’에서 ‘에서’는 ‘조그마한 보탬’이라도 되고자 하는 뜻이 ‘일’을 행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ㄱ에 해당한다.

e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들 이에서 더 기쁘지는 않을 것이다.’에서 ‘에서’는 어떤 상황이 ‘죽은 부모가 살아 돌아온다’는 상황과 비교가 되게 하고 있으므로 ㄷ에 해당한다.

017 답 ①

[선택률] ① 77% ② 11% ③ 5% ④ 4% ⑤ 3%

이게 정답! 가. ‘철수와 영수는 잠잔다.’는 ‘철수는 잠잔다.’와 ‘영수는 잠잔다.’로 나뉜다.

왜 답이 아니지? 나. ‘철수와 영수는 친하다.’는 ‘철수는 친하다.’와 ‘영수는 친하다.’로 나뉘지 않는다. ‘친하다’는 ‘서로’ 친한 것이기 때문, 즉 어떤 대상(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 ‘철수와 영수는 싸웠다.’는 ‘철수는 싸웠다.’와 ‘영수는 싸웠다.’로 나뉘지 않는다. ‘싸웠다’는 ‘서로’ 싸운 것이기 때문, 즉 어떤 대상(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라. ‘철수와 영수는 마주쳤다.’는 ‘철수는 마주쳤다.’와 ‘영수는 마주쳤다.’로 나뉘지 않는다. ‘마주쳤다’는 ‘서로’ 마주친 것이기 때문, 즉 어떤 대상(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 ‘철수와 영수는 헤어졌다.’는 ‘철수는 헤어졌다.’와 ‘영수는 헤어졌다.’로 나뉘지 않는다. ‘헤어졌다’는 ‘서로’ 헤어진 것이기 때문, 즉 어떤 대상(짝)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018 답 ③

[선택률] ① 3% ② 15% ③ 71% ④ 5% ⑤ 6%

이게 정답!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의미하는 부사격 조사이다. 이는 ‘한테’ 자리에 부사격 조사 ‘에게’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왜 답이 아니지? ① ‘삼촌이 밤에’ 글을 썼다.’에서의 ‘밤’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② ‘선수들이 오늘’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거나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 연주했다.’에서의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 만들었다.’에서 ‘까지’는 ‘그것이 극단적인 경우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019 답 ⑤

[선택률] ① 5% ② 19% ③ 7% ④ 3% ⑤ 66%

이게 정답! ‘그는 아이’를 순진하다.’에서의 ‘처럼’은 ‘그가 비교 대상인 ‘아이’와 ‘비슷하거나 같다’는 것을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이다.

왜 답이 아니지? ① ‘국수’ 먹으렴.’에서의 ‘라도’는 ‘그것이 썩 좋은 것은 아니나 그런대로 괜찮음’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② ‘영어’ 철수가 도사지.’에서의 ‘야’는 ‘강조’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③ ‘그 과자를 먹어’ 보았다.’에서의 ‘는’은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④ ‘일을 빨리’ 하면 안 된다.’에서의 ‘만’은 ‘무엇을 강조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샘 Tip 1등급을 가르는 포인트

018번 문제가 먼저 출제된 이후에 019번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런데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보조사 ‘은/는, 도, 만, 까지, 마저, 초차, 부터, 요’ 정도를 예로 제시하고 있는데, 평가원 주관의 018번 문제에서는 교과서에 나온 보조사 ‘은/는, 도, 만, 까지’를 다루어 출제한 반면, 교육청 주관의 019번 문제에서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은 보조사 ‘라도, 야’까지를 다루어 출제하였다. ‘라도’가 보조사라는 것은 쉽게 판별할 수 있지만, ‘야’가 보조사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판별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018번과 019번 문제는 평가원과 교육청 주관의 각 모의 평가 출제 경향의 차이점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20 답 ③

[선택률] ① 3% ② 3% ③ 63% ④ 24% ⑤ 7%

이게 정답! ‘나는 개와 고양이를 좋아한다.’에서 ‘와’는 ‘개’, ‘고양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서 하나의 명사구를 형성하는 접속 조사이다.

왜 답이 아니지? ① ‘오직 새소리만 들렸다.’에서 ‘만’은 ‘다른 것으로부터 제한하여 어느 것을 한정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② ‘시곱까지 한 달도 안 남았다.’에서 ‘도’는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로, 여기서는 ‘그 정도가 기대한 것보다 많거나 적음을 나타내는 말(곤, 정도를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④ ‘할아버지께서는 신문을 보셨다.’에서 ‘는’은 ‘어떤 대상이 화제임을 나타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⑤ ‘그는 평생 가족밖에 모르고 살았다.’에서 ‘밖에’는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이다.

021 답 ④

[선택률] ① 5% ② 3% ③ 7% ④ 82% ⑤ 3%

이게 정답! <보기 1>에 의하면, ‘마’는 ‘몇몇 종결 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

이고 '만'으로 줄어 들 수 있으며, '만은'은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고 하였다. <보기 2>의 예문을 보면,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에서 '-다'가 종결 어미임을 알 수 있고,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는 보태어 쓰러무나.'에서 '-느냐'가 종결 어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 ㉣에는 '만'의 줄임말인 '만'이 들어갈 수 있다. 따라서 ㉢~㉣ 중 '만'이 들어가야 할 것은 ㉢와 ㉣이다.

왜 답이 아니지? ㉠ 앞의 '-아서'가 연결 어미이고, ㉡에 '만'의 줄임말인 '만'을 넣으면 '여행을 가서만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로 다소 어색한 문장이 되므로, ㉡에는 '만'이 아닌 '만은'이 들어가야 한다. ㉢ 앞에는 '가지라'는 체언이 있으므로, ㉣에는 체언 뒤에도 붙어 쓰일 수 있는 '만은'이 들어가야 한다.

022 답 4 [선택률] ① 4% ② 5% ③ 5% ④ **62%** ⑤ 22%

이게 정답! <보기>의 예문 중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에서 '요'는 종결 어미 뒤에 쓰여 듣는 사람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지만, '선생님, 빨리요.'에서 '요'는 부사 뒤에 쓰여 듣는 사람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높임의 의미를 지닌 보조사 '요'가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한다는 ㉣는 적절하지 않다.

왜 답이 아니지? ①, ②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와 '철수야, 어디로 갈까?', '선생님, 빨리요.'와 '철수야, 빨리.',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와 '더우면 창문을 열까?',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와 '마음은 더없이 좋지.'를 비교해 보면,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함을 알 수 있다(①). 여기서 '요'는 높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장에서 '요'가 빠지면(생략되면) 높임의 여부만 달라짐을 알 수 있다(②). ③ '요'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요'가 붙더라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못한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접사이다. ⑤ 보조사 '요'는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에서는 주어 '마음은' 뒤에, '선생님, 빨리요'에서는 부사어 '빨리' 뒤에,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에서는 연결 어미 '-으면(답-+-으면)과 종결 어미 '-르까' 뒤에,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에서는 종결 어미 '-르까' 뒤에 나타나고 있다.

023 답 3 [선택률] ① 5% ② 2% ③ **90%** ④ 2% ⑤ 1%

이게 정답! '할머니께서는 ㉢ 반찬도 먹으라며 나무라셨다.'에서 보조사 '도'는 '놀라움'이 아니라 '더함'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왜 답이 아니지?** ① '내가 좋아하는 ㉠ 축구도 함께 했다.'에서 보조사 '도'는 목적어 '축구'를 자리에 사용되어 '더함'의 의미를 덧붙이고 있다. ② ㉡ '평소에도'를 볼 때, 보조사 '도'가 부사격 조사 '에' 뒤에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④ '고구마를 ㉢ 깎아도 먹고 구워도 먹었다.'를 보면, 보조사 '도'를 통해 고구마를 깎은 행위와 구운 행위가 동등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⑤ '배가 부르자 피곤이 밀려와서 씻기는커녕 옷을 ㉢ 갈아입지도 못하고 잠들어 버렸다.'를 보면, 보조사 '도'를 통해 씻는 것(다른 일)은 물론 옷을 갈아입는 일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4 답 2 [선택률] ① 3% ② **91%** ③ 2% ④ 2% ⑤ 2%

이게 정답! 보조사 '만'은 '단독', '한정'의 의미를 더해 주기 때문에, ㉠ '그 친구는 미술에 관심이 없어서 나만 가게 되었다.'에서 '만'을 통해 '나'의 결정이 친구의 결정과 같다는 의미가 아닌 '다르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답이 아니지? ① 보조사 '또는'은 '더함'의 의미를 더해 주기 때문에, ㉠ '나는 지난 주말도 ㉠미술관에 다녀왔다.'에서 '도'를 통해 지난 주말 이전에 '나'가 ㉠미술관에 간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보조사 '뿐만'은 '오직'의 의미를 더해 주기 때문에, ㉡ '주변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미술관에 자주 가는 사람은 나뿐일 것이다.'에서 '뿐만'을 통해 '나' 이외의 친구들은 미술관에 자주 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보조사 '은'은 '강조' 또는 '대조'의 의미를 더해 주기 때문에, ㉢ '㉠미술관에서 버스 정류장은 멀지만 전철역은 가까워서 전철을 타고 갔다.'에서 '은'을 통해 ㉠미술관에서 전철역까지의 거리와 버스 정류장까지의 거리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보조사 '마다'는 '날날이 모두'의 의미를 더해 주기 때문에, ㉣ '나는 그곳에 갈 때마다 행복해진다.'에서 '마다'를 통해 '나는 ㉠미술관에 가 있는 시간이 항상 행복함을 알 수 있다.

025 답 4 [선택률] ① 5% ② 13% ③ 14% ④ **62%** ⑤ 6%

이게 정답! ㉢ '할아버지에게는(는/도)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에서 조사 '는'이 선택된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없었지만 할아버지에게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곧, 할아버지는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내는 보조사 '는'이 선택된 것이다. 앞 문장에서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나와 이를 고려해서 '는'이 선택된 것은 아니다.

왜 답이 아니지? ①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가/는) 살고 있었습니다.'에서 조사 '가'가 선택된 이유는, 마을에 살고 있는 상황에 놓인 대상으로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 처음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떤 담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상을 말할 때에는 주격 조사 '이/가'를 사용한다. ② ㉡ '할아버지(가/는) 동물을 좋아했습니다.'에서 조사 '는'이 선택된 이유는 앞 문장에서 주어 '할아버지'가 이미 한 번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담화 속에서 새로운 대상이 등장한 후 그 대상이 다시 나오면 보조사 '은/는'을 사용한다. ③ ㉢ '그러나 돼지(를/는) 무척 싫어했습니다.'에서 조사 '는'이 선택된 이유는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사실이 할아버지가 개와 고양이를 귀여워한다는 사실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됨을 나타낼 때에는 보조사 '는'을 사용할 수 있다. ⑤ ㉣ '말썽꾸러기 돼지(가/는)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에서 조사 '는'이 선택된 이유는 돼지가 다른 동물들과 대조되기 때문이다. 곧, 돼지가 개처럼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이 다른 것과 대조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보조사 '은/는'을 사용할 수 있다.

샘 Tip 1등급을 가르는 포인트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의 선택지 ①, ②가 왜 옳은지에 대한 질문을 하였는데, 사실 이는 교육과정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가 출제되었을 당시에는 '국어영역'이 '언어영역'이었기 때문에, 언어적 직관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나 빈번하게 출제되었다. 그래서 언어적 직관으로 선택지 ①, ②를 오답으로 골라낼 수는 있다. 하지만 요즘의 '국어영역'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선택지 ①, ②와 같은 내용이 출제되기는 힘들 것이다. 대학 과정의 '담화' 단원에 '구정보', '신정보'라고 하여, 어떤 담화 속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대상을 말할 때에는 주격 조사 '이/가'를 쓰고, 그 대상이 뒤에 다시 나오면 보조사 '은/는'을 쓴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현재 「독서와 문법」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 문제에서는 선택지 ③, ⑤에만 주목하면 되겠다.

026 답 4 [선택률] ① 8% ② 2% ③ 14% ④ **63%** ⑤ 13%

이게 정답! ㉠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의 '과'와 ㉡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의 '와'는, 각각 앞말인 '형'과 '너'의 의미 때문이 아니라 앞말의 받침 유무에 따라 선택된 것이다. '와/과'는 접속 조사로, 앞말에 받침이 없을 때는 '와'가 선택되고, 앞말에 받침이 있을 때는 '과'가 선택된다. **왜 답이 아니지?** ① ㉠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에서 '께서는'는 체언 '할머니'에 결합하여 주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에는'는 체언 '집'에 결합하여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② ㉡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의 '이와 달리', ㉢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의 '께서는'는 '할머니'가 높임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용된 것이다. 곧, '께서는'는 주격 조사 '이/가'의 높임말이다. ③ ㉡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에서 '이'는 서술어 '만났다'의 의미를 고려할 때, 체언 '동생'에만 결합된 것이 아니라 '형과 동생'이라는 구에 결합된 것이다. ⑤ ㉡ '너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에서 '만'의는 보조사 '만'과 관형격 조사 '의'가 결합된 것이다.

027 답 5 [선택률] ① 3% ② 9% ③ 4% ④ 7% ⑤ **77%**

이게 정답! <보기>에 제시된 예문 중 '빵만으로 살 수 없다.'를 보면, 보조사 '만'이 격 조사 '으로' 앞에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사는 격조사 뒤에만 붙을 수 있다는 ㉢는 적절하지 않다. **왜 답이 아니지?** ① '민수(가/는) 운동(을/은) 싫어한다.'를 보면, 격 조사 '가', '을' 대신에 보조사 '는', '은'이 올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나는 점심에 국수 먹었는데 너는 무엇을 먹었어?'를 보면, '국수' 뒤에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형(은/*는) 학교에 가고, 나(*은/는) 집에 갔다.'를 보면, 앞에 오는 말에 받침이 있으면 '은'이, 받침이 없으면 '는'이 선택됨을 알 수 있다. ④ '어서요 읽어 보세요.'를 보면, 부사 '어서' 뒤에 보조사 '요'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28 답 3 [선택률] ① 4% ② 2% ③ **78%** ④ 6% ⑤ 10%

이게 정답! ㉠을 보면, 체언 '물'에 보조사 '만', '도'가 붙어 '물만', '물도'가 되었다고 해서 체언이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아니다. 다른 품사로 바뀌었다면 '물만', '물도'가 하나의 단어여야 하는데, '물만', '물도'는 체언에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일 뿐이다. **왜 답이 아니지?** ① ㉠에서 '이'는 체언 '동생'에 붙어 주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을'은 체언 '책'에 붙어 목적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가'는 체언 '여기'에 붙어 주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이다'는 체언 '천국'에 붙어 서술어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② ㉡에서 '와'와 '랑'은 모두 앞뒤의 두 체언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이다. ④ ㉢에서는 용언 '예쁘게' 뒤에 보조사 '도'가 붙어 쓰이고 있음, 부사 '천천히' 뒤에 보조사 '만'이 붙어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이것이 좋다'와 비교해 보면 '이것 좋다.'에는 '이것' 뒤에 조사 '이'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것만으로도 좋다.'에서는 보조사 '만', 부사격 조사 '으로', 보조사 '도'가 겹쳐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29 답 1 [선택률] ① **87%** ② 3% ③ 3% ④ 4% ⑤ 3%

이게 정답! 어떤 단어가 동사인지를 형용사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의도를 나타내는 '-려 한다', 명령형 종결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종결 어미 '-자', 진행을 나타내는 '-고 있다'와의 결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면 되는 데, 동사는 이들과의 결합이 가능하고, 형용사는 불가능하다. 곧, '옷에 단추를 달다.'의 '달다'는 '달려 한다/달아라/달자/달고 있다'로 쓰일 수 있으므로 '동사'이고, '과일은 대부분 맛이 달다.'의 '달다'는 그렇지 않으므로 '형용사'이다. 따라서 주어인 ㉠~㉣의 항목에 동사는 모두 ㉠, 형용사는 모두 ㉡가 표시되어야 하므로, ㉠와 ㉡만이 옳은 학습 결과이다. 참고로, 동사는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는'과 결합이 가능하며, 형용사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 역시 동사와 형용사의 구분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030 답 5 [선택률] ① 5% ② 19% ③ 7% ④ 3% ⑤ **66%**

이게 정답! '없다'의 어간 '없-'에 청유형 어미 '-자'를 결합한 '없자'는 문법적으로 옳지 않으므로(그 사람은 용기가 없자.), '없다'가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왜 답이 아니지?** ① '있다'의 어간 '있-'에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 '-는'을 결합한 '있는'은 문법적으로 옳으므로(용기가 있는 사람), '있다'가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없다'의 어간 '없-'에 현재형 관형사형 어미 '-는'을 결합한 '없는'은 문법적으로 옳으므로(용기가 없는 사람), '없다'가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③ '없다'의 어간 '없-'에 감탄형 어미 '-구나'를 결합한 '없구나'는 문법적으로 옳으므로(그 사람은 용기가 없구나.), '없다'가 형용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④ '있다'의 어간 '있-'에 청유형 어미 '-자'를 결합한 '있자'는 문법적으로 옳으므로(우리 오늘 집에 있자.), '있자'가 동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31 답 4 [선택률] ① 10% ② 7% ③ 9% ④ **60%** ⑤ 14%

이게 정답! <보기 1>에 의하면 <보기 2>의 ㉠은 본용언이고, ㉡은 보조 용언이다.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에서 '오겠다(오다)'는 돈을 구해서 오겠다는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본용언에 해당한다. 곧, 그가 돈을 구해서 내일까지 오겠다는 것이므로,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 쓰임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왜 답이 아니지?**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에서 '버리니(버리다)'는 '가지거나 지니고 있을 필요가 없는 물건을 내던지거나 쏟거나 하다.', '뒤틀 성격이나 버릇 따위를 떼어 없애다.' 등의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 여기서 '버리니'가 그 앞의 용언 '해'가 없으면 쓰일 수 없다는 점(그 일을 다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문장의 의미가 달라짐)도 '버리니'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것이라는 증거이다.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에서 '주었다(주다)'는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앞 동사의 행위가 다른 사람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 여기서 '주었다'가 그 앞의 용언 '들어'가 없으면 쓰일 수 없다는 점(*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주었다.)도 '주었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것이라는 증거이다.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된다.'에서 '된다(두어라 → 두다)'는

‘일정한 곳에 놓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끌 내고 그 결과를 유지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 여기서 ‘뒤라’가 그 앞의 용언 ‘쉬어’가 없으면 쓰일 수 없다는 점(*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뒤라.)도 ‘뒤라’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것이라는 증거이다.

㉘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에서 ‘보고(보 다)’는 ‘눈으로 대상의 존재나 형태적 특징을 알다.’라는 실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행동을 시험 삼아 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 여기서 ‘보고’가 그 앞의 용언 ‘계산해’가 없으면 쓰일 수 없다는 점(*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보고 시작하자.)도 ‘보고’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것이라는 증거이다.

032 답 ⑤

[선택률] ① 16% ② 8% ③ 27% ④ 7% ⑤ 42%

이게 정답! ‘봄에는 제주도도 여행을 가고 싶다.’에서 ‘싶다’는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욕구를 갖고 있음’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으로 쓰였다. 여기서 ‘싶다’가 그 앞의 용언 ‘가고(가다)’가 없으면 쓰일 수 없다는 점(*봄에는 제주도도 여행을 싶다.)도 ‘싶다’가 보조 용언으로 쓰인 것이라는 증거이다.

왜 답이 아니지? ① ‘영화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에서 ‘보자(보다)’는 ‘눈으로 대상을 즐기거나 감상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본용언으로 쓰였다. ‘영화는 밥을 먼저 먹고 보자.’라는 문장은, ‘밥을 먼저 먹고 영화를 보자.’라는 문장에서 ‘영화에’를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목적격 조사 ‘를’ 자리에 보조사 ‘눈’을 넣어 맨 앞으로 어순을 이동한 것인데, 이처럼 목적어를 갖는 용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보자’가 본용언임을 알 수 있다.

② ‘철수는 낮잠을 자고 일어났다.’에서 ‘일어났다(일어나다)’는 ‘잠에서 깨어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본용언으로 쓰였다.

③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놀고 왔다.’에서 ‘왔다(오다)’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사람 혹은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 쪽으로 움직여 위치를 옮기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본용언으로 쓰였다.

④ ‘힘이 드니 잠시 여기 있다 가자.’에서 ‘가자(가다)’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하다.’의 의미를 나타내는 본용언으로 쓰였다.

033 답 ④

[선택률] ① 3% ② 6% ③ 2% ④ 86% ⑤ 3%

이게 정답! ㄴ의 ‘날씨가 더워 온다.’는 본용언 ‘더워’에 보조 용언 ‘온다’가 결합한 것으로, ㄷ과 같이 ‘날씨가 덥다. + 날씨가 온다.’로 분리할 수 없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은 탐구 결과이다. 한편, ㄷ의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는 본용언 ‘먹고’와 본용언 ‘갔다’가 결합한 것으로, ㄷ과 같이 ‘철수가 밥을 먹었다. + 철수가 갔다.’로 분리할 수 있다.

왜 답이 아니지? ① ㄱ의 ‘날씨가 덥다.’에서와 같이 ‘덥다’가 홀로 쓰이기도 하지만, ㄴ ‘날씨가 더워 온다.’에서와 같이 ‘덥다’가 보조 용언 ‘오다’와 어울려 쓰이기도 한다.

② ㄴ의 ‘날씨가 더워 온다.’에서 뒤의 용언인 ‘온다’는 앞의 본용언 ‘더워’의 의미를 보조하여 ‘앞말이 뜻하는 행동이나 상태가 말하는 이 또는 말하는 이가 정하는 기준점으로 가까워지면서 계속 진행됨’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 용언이다.

③ ㄷ의 ‘철수가 밥을 먹고 갔다.’에서 ‘먹고 갔다’는 ‘먹고 나서 갔다’라는 의미이므로, ‘먹고(먹다)’와 ‘갔다(가다)’는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본용언으로 쓰인 것이다. 그런데 ‘먹고 갔다’는 문법적으로 옳지만, ‘먹고 갔다’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표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통해 두 용언이 모두 실질적인 의미를 지닌 ‘본용언+본용언’ 구성은 두 용언 사이를 띄어 써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ㄴ의 ‘더워 온다’는 본용언 ‘덥다’와 보조 용언 ‘오다’ 사이에 연결 어미

‘-어’가, ㄷ의 ‘먹고 갔다’는 본용언 ‘먹다’와 본용언 ‘가다’ 사이에 연결 어미 ‘-고’가, ㄷ의 ‘접어 띄웠다.’는 본용언 ‘접다’와 본용언 ‘띄우다’ 사이에 연결 어미 ‘-어’가 결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034 답 ④

[선택률] ① 5% ② 5% ③ 7% ④ 77% ⑤ 6%

이게 정답! ④의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에서 ‘벗고 있어도’는 안경을 벗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㉘)을 의미할 뿐, 안경을 벗고 있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왜 답이 아니지? ①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에서 ‘하고 있었어요’는 양치질을 하고 있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㉙)을 의미한다.

②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에서 ‘오해하고 있는’은 오해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㉘)을 의미한다.

③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에서 ‘알고 있어’는 알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㉘)을 의미한다.

⑤ ‘백타이를 매고 있네.’에서 ‘매고 있네’는 백타이를 매고 있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㉙)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백타이를 매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㉘)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㉚).

035 답 ①

[선택률] ① 48% ② 7% ③ 11% ④ 8% ⑤ 26%

이게 정답! <보기>의 ㉠ ‘불구하고’의 기본형 ‘불구하다’는 ‘불구하여(불구하-+-어)’, ‘불구하게’, ‘불구하면’, ‘불구하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는다. 곧, ‘불구하다’는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용언이다. 반면, ①의 ‘애처롭게’의 기본형 ‘애처롭다’는 ‘애처롭고’, ‘애처로워(애처롭-+-어)’, ‘애처로우면(애처롭-+-으면)’, ‘애처롭지’ 등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용언이 아니다.

왜 답이 아니지? ② ‘허구한’의 기본형 ‘허구하다’는 ‘허구하고’, ‘허구하여(허구하-+-어)’, ‘허구하게’, ‘허구하면’, ‘허구하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용언이다.

③ ‘막다르’의 기본형 ‘막다르다’는 ‘막다르고’, ‘막달라(막다르-+-아)’, ‘막다르게’, ‘막다르면’, ‘막다르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용언이다.

④ ‘서슴지’의 기본형 ‘서슴다’는 ‘서슴고’, ‘서슴어’, ‘서슴게’, ‘서슴으면’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용언이다.

⑤ ‘가공할’의 기본형 ‘가공하다’는 ‘가공하고’, ‘가공하여(가공하-+-어)’, ‘가공하게’, ‘가공하면’, ‘가공하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일부 어미와만 결합하는 용언이다.

036 답 ③

[선택률] ① 16% ② 15% ③ 54% ④ 10% ⑤ 5%

이게 정답! <보기>에서는 일부 어미와만 제한적으로 결합하는 동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③에서의 ‘모시고’의 기본형 ‘모시다’는 ‘모셔(모시-+-어)’, ‘모시게’, ‘모시면’, ‘모시지’ 등과 같이 다양한 어미와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 동사이다.

왜 답이 아니지? ① ‘달라고’의 기본형 ‘달다(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게 어떤 것을 주도록 요구하다)’는 ‘달고’, ‘달아’, ‘달게’, ‘달면’, ‘달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② ‘즈음하여’의 기본형 ‘즈음하다’는 ‘즈음하고’, ‘즈음하게’, ‘즈음하면’, ‘즈음하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④ ‘서슴지’의 기본형 ‘서슴다’는 ‘서슴고’, ‘서슴어’, ‘서슴게’, ‘서슴으면’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⑤ ‘더불어’의 기본형 ‘더불어다’는 ‘더붙고’, ‘더붙게’, ‘더붙면’, ‘더붙지’ 등으로는 활용하지 않으므로,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동사이다.

★ Tip '등급을 가르는 포인트'

이 문제 유형을 질문한 학생들이 많았다. 036번 문제의 <보기>에서 결합 가능한 어미의 목록을 예시로 보여 주었으므로, 이 예시에 따라 035번 문제의 밑줄 친 단어 들에도 똑같이 결합해 보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다만, 035번 문제는 평가원 모의 평가 문제로 결합 가능한 어미의 목록을 예시로 보여 주지 않았고, 036번 문제는 교육청 주관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로 결합 가능한 어미의 목록을 예시로 보여 주었다. 요즘과 같은 ‘국어영역’ 시험의 스타일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는 036번 문제와 같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037 답 ⑤

[선택률] ① 8% ② 10% ③ 6% ④ 13% ⑤ 63%

이게 정답! ㄹ은 체언에 서술격 조사가 결합된 서술어에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한 경우로, ‘학생이있고’와 ‘부모있다’를 볼 때, 체언의 마지막 음절에 받침이 있으면 ‘-이었-’의 준말인 ‘-었-’이 쓰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었-’과 그것의 준말인 ‘-었-’ 사이에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

왜 답이 아니지? ① 선어말 어미 ‘-었-, -았-, -였-’은 모두 과거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ㄴ의 ‘조였다’의 기본형은 ‘조이다’이고, ㄷ의 ‘먹었다’의 기본형은 ‘먹이다’이다. 여기서 ‘조이다’와 ‘먹이다’의 ‘-이-’는 모두 사동사를 만드는 사동 접미사로, 각각 ‘조다’와 ‘먹다’에 결합한 것이다. 사동 접미사가 결합하면 ‘조다’와 ‘먹다’와는 다른 새로운 단어인 ‘조이다’와 ‘먹이다’가 각각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조이다’와 ‘먹이다’에 각각 선어말 어미 ‘-었-’이 결합하면 ‘조이었다’와 ‘먹이었다’가 되며, 각각의 준말이 바로 ‘조였다’와 ‘먹었다’이다.

③ ㄷ의 ‘먹었다’는 앞서 선택지 ②의 해설에서 설명했듯이 ‘먹이었다’의 준말인데, ㄱ의 ‘하였다’는 ‘하이었다’의 준말이 아니다. 이는 용언 ‘하다’의 어간 ‘하-’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었-’이 결합하면서 어미가 불규칙하게 바뀌는 활용을 하게 되어 ‘하였다’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ㄱ의 ‘하였다’의 ‘-였-’과 ㄷ의 ‘먹었다’의 ‘-였-’은 그 형태소 구성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④ ㄹ에서 ‘-았-’은 어간 ‘보-’에 쓰인 양성 모음 뒤에, ‘-었-’은 어간 ‘듣-’에 쓰인 음성 모음 뒤에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어간 뒤에 ‘-었-’이 쓰인 경우는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양성 모음이 쓰이지 않고 음성 모음이 쓰인 것이다.

038 답 ④

[선택률] ① 2% ② 5% ③ 2% ④ 90% ⑤ 1%

이게 정답! ④의 ‘(소풍날 날씨가) 아주 나빴어.’에 쓰인 선어말 어미 ‘-았-’은 과거인 소풍날의 날씨 상태가 좋지 않았음(㉙)을 의미할 뿐, 과거인 소풍날의 안 좋은 날씨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왜 답이 아니지? ① ‘(어제)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에 쓰인 선어말 어미 ‘-았-’은 어제 텔레비전을 본 사건이 과거임(㉚)을 의미한다.

② ‘(아까)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에 쓰인 선어말 어미 ‘-았-’은 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간 사건이 과거임(㉚)을 의미한다.

③ ‘아직도 목이 잡겼어.’에 쓰인 선어말 어미 ‘-었-’은 목이 잠긴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㉘)을 의미한다.

⑤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에 쓰인 선어말 어미 ‘-았-’은 오늘 잠을 자기가 어렵다는 것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음(㉚)을 의미한다.

039 답 ③

[선택률] ① 1% ② 1% ③ 90% ④ 7% ⑤ 1%

이게 정답! ㄷ ‘설악산에는 벌써 단풍이 들었겠다.’를 보면, 선어말 어미 ‘-겠-’은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었-’과 함께 쓰이고 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은 탐구 내용이다.

왜 답이 아니지? ① ㄱ ‘구름이 낀 걸 보니 내일은 비가 오겠다.’에서 ‘-겠-’은 미래 시제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

② ㄴ ‘서울에는 지금쯤 눈이 내리겠다.’에서 ‘-겠-’은 ‘서울에는 지금 눈이 내린다.’라는 현재의 사실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추측을 나타낸다.

④ ㄹ ‘그 목표를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는 문법적으로 옳고, ‘그 목표를 형이 꼭 이루겠습니다.’는 옳지 않다는 것에서, ‘-겠-’이 의지를 나타내는 문장에서는 말하는 사람과 주어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ㄹ ‘그 정도는 어린애도 알겠다.’에서 ‘-겠-’은 능력을, ‘그 정도는 어린애도 할 수 있겠다.’에서 ‘-겠-’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040 답 ①

[선택률] ① 87% ② 5% ③ 3% ④ 2% ⑤ 3%

이게 정답! ‘나는 이번 시험에 합격하고야 말겠다.’에서 ‘-겠-’은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므로, ①은 ①의 예로 적절하다.

왜 답이 아니지? ② ‘그렇게 쉬운 것은 삼척동자도 알겠다.’에서 ‘-겠-’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③ ‘이 많은 일을 어떻게 혼자 다 하겠니?’에서 ‘-겠-’은 가능성을 나타낸다.

④ ‘오늘 눈이 많이 와서 길이 미끄럽겠다.’에서 ‘-겠-’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⑤ ‘지금 떠나면 내일 새벽에 도착하겠구나.’에서 ‘-겠-’은 화자의 추측을 나타낸다.

041 답 ①

[선택률] ① 64% ② 6% ③ 3% ④ 3% ⑤ 24%

이게 정답! ‘제가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는 ‘내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의도를 선어말 어미 ‘-겠-’을 사용하여 완곡하게(말하는 투를 부드럽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①은 ‘-겠-’이 말하는 이의 ‘완곡한 태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왜 답이 아니지? ② ‘동생은 영화를 보러 가겠다고 한다.’에서 ‘-겠-’은 영화를 보러 간다고 한 동생, 곧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낸다.

③ ‘지금 떠나면 저녁에야 도착하겠구나.’에서 ‘-겠-’은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④ ‘다음 달 정도면 날씨가 시원해지겠지?’에서 ‘-겠-’은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을 나타낸다.

⑤ ‘이 정도의 고통은 내 힘으로 이겨내겠다.’에서 ‘-겠-’은 말하는 이의 의지를 나타낸다.

042 답 ⑤

[선택률] ① 5% ② 3% ③ 5% ④ 3% ⑤ 84%

이게 정답! ㄹ ‘선생님께서서는 소설을 읽으셨다.’에서 ‘읽으셨다’는 ‘읽으시었다’의 준말로,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과거 시제의 선어말 어미 ‘-었-’보다 앞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왜 답이 아니지? ① ㄱ ‘나는 지금 소설을 읽는다.’에서 ‘-는-’은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이고, ‘나는 어제 소설을 읽었다.’에서 ‘-었-’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② ㄴ ‘철수는 내일 소설을 읽겠구나.’에서 선어말 어미 ‘-겠-’은 미래 시제